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117)

제3부 : 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49 4)108여단 주둔지-(10)부소악·거친오름
산악지형 이용 일본군 유격진지 구축

입력 : 2008. 09.11. 00:00:00



▲취재팀이 부소악 정상부 능선에 구축된 참호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이승철기자 sclee@hallailbo.co.kr

부소악에 함몰 갱도·참호 등 15곳 분포 첫 국영목장 터를 일본군 숙영지로 이용

화산섬 제주는 흔히 '오름왕국'이라 표현된다. 오름의 백미는 제주 동부지역에서 느낄 수 있다. 파노라마처럼 펼쳐진 오름군은 섬이라는 느낌과는 거리가 있다. 오히려 대륙과 같은 산세가 느껴진다. 오름은 그 기슭에 널따란 평원을 품고 있다. 제주 동부는 산악지형과 너른 개활지가 교차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그 때문일까. 태평양전쟁 말기 일본군 독립훈성제108여단은 동부지역 깊숙한 내륙인 거문오름 부대오름 일대에 사령부를 배치한다. 거문오름·부대오름을 둘러싼 주변은 많은 오름이 밀집돼 있고, 물 또한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해안으로부터 10여km 떨어진 산중 일대는 1945년 당시 일본군들에 의해 유격진지의 거점으로 이용됐고, 오름마다 많은 군사시설들이 만들어졌다. 108여단 6천여 병력은 이 일대를 중심으로 제주 동부지역 주요 지점마다 주둔하고 있었다. 이 일대는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조성된 최초의 국영목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제1소장터이기도 하다. 제1소장 일대는 이승만 정부에 의해 송당목장으로 변모한다. 그만큼 역사적으로도 중요시됐던 곳이기도 하다.

취재팀이 찾은 부소악(扶小岳·표고 469.2m)에서도 일본군 군사시설을 찾아볼 수 있다.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소재 부소악은 부대오름 동남쪽에 나란히 위치해 있다. 말굽형 화구가 서남쪽으로 벌어져 있고, 10여m 단애가 형성된 남사면은 천미천 협곡을 이룬다.



▲부소악과 나란히 있는 부대오름에 구축된 일본군 갱도진지.

부소악에도 일본군들은 갱도 등 많은 군사시설을 구축해놓았다. 하지만 부소악의 갱도는 대부분 입구가 함몰돼 있다. 함몰된 갱도는 오름 북서쪽 사면 하단부에서 7부 능선지점까지 분포하고 있다. 갱도 입구에 송이(Scoria)층이 비교적 높게 쌓여 있는 것으로 볼 때 갱도진지는 그 규모가 컸을 것으로 보인다.

부소악에서 취재팀의 눈길을 끈 것은 정상부 북서쪽 능선에 구축된 참호형태의 진지다. 이 진지는 부대오름과 거문오름 방향으로 교통호가 7~8m 형성돼 있다. 제일 안쪽 내부는 사각형태(2.0×2.5m)로 구축돼 있고 높이도 2m 정도 되는 규모다. 입구 쪽에는 조그만 공간(1.0×1.5m)이 하나 만들어져 있다.

오름 정상부 송이층을 굴착해서 만든 진지의 용도는 무엇일까. 이곳에서는 부소오름과 거문오름 및 주변 오름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108여단 사령부 주둔지 일대를 관측할 수 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진지는 구조적으로나 정상부에 위치해 있는 점으로 봤을 때 관측용으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부소악에서 확인되는 또하나의 갱도는 말굽형으로 터진 분화구 안쪽 7부 능선 지점에 위치해 있다. 입구는 상당부분 함몰돼 있지만 내부는 통로가 형성돼 있음을 볼 수 있다. 부소악에서 확인되는 동굴진지는 모두 15곳 정도에 이른다. 이러한 규모는 부대오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이 일대가 대규모 동굴진지가 구축돼 있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거친오름 갯도 입구 정면으로 체오름이 가까이 자리하고 있다.

거문오름과 체오름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거친오름(巨親岳·표고 354.6m)에서도 일본군들의 주둔 흔적은 남아있다. 입구가 무너진 갯도 2곳이 동쪽 사면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거친오름 앞은 평탄한 개활지다.

주민들의 증언에 의하면 체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거친오름으로 둘러싸인 개활지에 당시 많은 일본군들이 숙영하고 있었다.

'일본군제58군배비개건도 제주도' 지도에는 부소악과 거친오름을 포함한 이 일대는 108여단 사령부 및 그 예하병력 주둔지임을 보여주듯 주저항진지로 구축된 것으로 나타난다. 또다른 군사 지도인 '제주도병력기초배치요도' 상에는 제주 동부지역은 유격진지로 표시돼 있다.

부소악과 거친오름을 비롯한 이 일대에 구축된 갯도진지 등 일본군 군사시설은 제주 동부지역 일대에서 유격전을 준비했던 일본군 실상을 보여주는 생생한 현장들이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탐사 포커스]동부지역 핵심 주저항진지

108여단 사령부 및 예하병력이 주둔했던 거문오름 부대오름 일대는 제주 동부지역의 가장 강력한 주저항진지 가운데 하나다.

거문오름 부대오름 부소오름 및 체오름 거친오름 안돌오름 밧돌오름 거센새미오름 일대가 여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오름마다에는 갯도진지가 10여 곳 구축돼 있어 일본군이 이 일대를 얼마나 중요히 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러한 갯도진지 구축양상은 일본군 제111사단 주둔지인 제주 서남부와 96사단 주둔지인 제주 중앙부와 좋은 비교가 된다.

제주 서남부 역시 모슬포 안덕 해안을 중심으로 단산 산방산 월라봉 군산 논오름을 잇는 주저항진지 라인이 형성돼 미군 등 연합군의 상륙을 저지하기 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96사단의 경우도 사단사령부 주둔지인 제주시 산천단 일대와 상여오름 광이오름 남조봉 민오름 일대가 중심되는 주저항진지다. 제주시 봉개동의 명도암 일대의 오름도 연대본부 주둔지로서 주저항진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다른 일본군 주요 주둔지와 비교해보면 거문오름 부대오름 일대는 여단사령부 및 예하병력 주둔지라는 중요성을 보여주듯 제주 동부지역의 핵심 주저항진지로 구축됐음을 알 수 있다.

/이윤형기자 yhlee@hallailbo.co.kr

※한라일보(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